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김 자 경*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강 혜 진**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김 주 영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특성을 알아 보고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 10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188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자기보고식 불안척도, 우울척도, 대학생활적응척도이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성별, 학년, 장애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학년,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연령, 학년,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장애대학생의 불안과 우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불안, 우울, 대학생활적응

1. 서론

1. 연구의 의의

최근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1995년에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등록을 필한 자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병변) 등의 장애를 지닌 자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각 대학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polehj@hanmail.net)

이러한 법적 마련으로 장애학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대학에 입학하는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에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학습지원, 물리적 환경 개선, 생활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제 연한에 학업을 마치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또한, 특례입학으로 들어간 장애대학생 중에서 약 30%는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휴학이나 자퇴 등 대학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진호, 200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많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지적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바람직한 자아상을 확립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만, 실패할 경우 본인과 사회전체는 유형무형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정현욱, 1996). 한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불안, 우울과 같은 개인-정서적 요소, 대학활동과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소, 그리고 학업적 요소가 있다(Baker & Siryk, 1984). 특히, 불안, 우울과 같은 개인-정서적 요소는 흥미상실, 낮은 학업수행, 과제 완수를 잊거나 실패함, 시험불안(Coleman & Webber, 2002)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정현욱, 1996; 한덕웅 외, 1992), 사회에서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불안, 우울의 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Coleman & Webber, 2002). 특수아동과 청소년의 76%가 불안을 경험하고(Last et al., 1987), 특수아동들의 21~37%, 그리고 청소년들의 21~5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Coleman & Webber, 2002).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장애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약한 자아통제력, 고립된 느낌으로 인해(장순욱, 2001) 불안, 우울이 급증하게 된다(권석만, 2000; Kazdin, 1988; Rutter, 1991). 특히, 장애학생들은 대학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의 차별이나 소외감, 낮은 성적, 교우관계의 어려움, 진로에 불안감(이옥경, 2004)으로 불안,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권현용, 김현미, 2004; 장순욱, 2001). 이와 같이, 장애대학생들이 불안, 우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원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국한되어 있고 장애대학생의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대학생의 성별, 장애발생시기,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정재권과 강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났고, 최국환(2006)의 연구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대학생들의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경림과 박재국(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이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의 특성을 알아보고,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장애대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장애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별, 연령, 소속학과 및 학년, 입학방법(특례입학, 일반전형),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발생시기, 거주지 등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불안, 우울,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불안,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애대학생의 불안 특성을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장애대학생의 우울 특성을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특성을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적응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있는 전국 10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188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Beck의 불안척도

본 검사도구는 Beck 등(1988)에 의해 개발된 것을 서수균(1996)이 번안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4점 척도로 평가되고 전체 점수범위는 0-63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피검사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도(0: 전혀 느끼지 않았다, 1점: 조

금 느꼈다, 2점: 상당히 느꼈다, 3점: 심하게 느꼈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 α =.93으로 신뢰롭다.

<표 1> 장애대학생의 배경변인별 특성

변인		N(%)	변인		N(%)
성별	남	106(56.4)	장애유형	시각장애	12(6.4)
	여	82(43.2)		청각장애	53(28.2)
연령	18~20세	37(19.7)		지체장애	77(41.0)
	21~23세	90(47.9)		뇌병변장애	27(14.4)
	24세 이상	61(32.4)		기타	19(10.1)
학년	1학년	82(43.6)	입학방법	특별전형	152(80.9)
	2학년	78(41.5)		일반전형	36(19.1)
	3학년	16(8.5)	학과	인문사회계열	97(51.6)
	4학년	12(6.4)		이공계열	50(26.6)
장애 발생시기	선천성	81(43.1)		예체능계열	41(21.8)
	후천성	107(56.9)	거주지	자택	81(43.1)
장애등급	1~3등급	160(85.1)		기숙사	95(50.5)
	4~6등급	28(14.9)		기타	12(6.4)

2) 한국 우울증 검사(KDS)

본 검사도구는 이민수와 이민규(200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하위영역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걱정과 초조, 우울기분, 신체화 증상, 의욕상실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5점 척도로 평가되고 전체 점수범위는 30-15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피검사자는 지난 두 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 점: 아니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한국 우울증 검사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은 <표 2>와 같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의 Cronbach α =.69~.87이고, 총점의 Cronbach α =.95로 신뢰롭다.

<표 2> 한국 우울증 검사 척도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구성	문항 수	Cronbach α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1, 7, 13, 19, 25*	5	.79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2, 8, 14*, 20, 26	5	.69
걱정과 초조	3, 9, 15, 21, 27	5	.84
우울 기분	4, 10, 16, 22, 28	5	.87
신체화 증상	5, 11, 17, 23, 29	5	.78
의욕상실	6, 12, 18, 24, 30	5	.82
전체		30	.95

*표는 역산 문항

3)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검사도구는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경립, 박재국(2007)에서 사용한 것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하위영역은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5점 척도로 평가되고 전체 점수범위는 42-21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따라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구성은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의 Cronbach α =.78~.87이고, 총점의 Cronbach α =.93으로 신뢰롭다.

<표 3>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영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구성	문항 수	Cronbach α
개인 정서적 적응	2*,6*,10*,16*,20*,25*, 26*,29*,32*,33*,41*	11	.87
사회적 적응	3,7,8,14,21,24,28*, 30*,34,35*,40,42	12	.85
일반적 적응	11,12,18*,23*,36*, 38*,39*	7	.81
학업적 적응	1,4,5*,9*,13*,15,17*, 19*,22*,27*,31,37*	12	.78
전체		42	.93

*표는 역산 문항

3. 조사절차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각 센터의 책임자에게 개별 학생에게 검사지의 유의사항을 전달한 후 작성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다.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복사본을 제공하였고, 전맹 학생에게는 한글 파일을 제공하였다. 363부를 배부하여 20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7%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188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우울, 불안, 대학생활적응 특성은 배경변인에 따라 독립표본 t-test나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 불안과 대학생활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정도

<표4>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의 성별($t=-2.12, p<.05$), 학년($F=2.73, p<.05$), 장애등급($t=4.22, p<.001$)에 따라서 불안 총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는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학생(34.14 ± 10.86)이 남학생(30.91 ± 9.90)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는 1~3등급(33.28 ± 19.67)이 4~6등급(26.82 ± 6.79) 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 장애대학생의 불안 정도 비교

배경변인(N)		M(SD)	t/F	배경변인(N)		M(SD)	t/F
성별	남(106)	30.91(9.90)	-2.12*	장애유형	시각장애(12)	32.08(12.76)	.19
	여(82)	34.14(10.86)			청각장애(53)	32.41(10.51)	
연령	18~20세(37)	34.43(12.14)	1.33		지체장애(77)	31.66(9.55)	
	21~23세(90)	31.18(6.60)			뇌병변장애(27)	33.48(10.63)	
	24세 이상(61)	32.72(10.44)			기타장애(19)	33.26(12.56)	
학년	1학년(82)	34.60(11.6)	2.73*		입학방법	특별전형(152)	
	2학년(78)	30.91(9.70)		일반전형(36)		33.02(11.25)	
	3학년(16)	28.18(8.62)		학과	인문사회(97)	33.44(11.53)	2.19
	4학년(12)	31.41(10.37)			이공계(50)	29.72(8.53)	
장애등급	1~3등급(160)	33.28(10.67)	4.22***	예체능(41)	32.85(9.40)		
	4~6등급(28)	26.82(6.76)		거주지	자택(81)	32.55(11.22)	
발생시기	선천성(81)	32.96(10.29)	.72		기숙사(95)	32.22(9.84)	
	후천성(107)	31.84(10.55)			기타(12)	31.58(10.19)	

* $p<.05$, *** $p<.001$

2.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우울 정도

<표5>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의 학년($F=3.01, p<.05$), 장애유형($F=2.81, p<.05$), 장애등급($t=5.83, p<.001$)에 따라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 1~3등급(49.77 ± 16.44)이 4~6등급(37.89 ± 8.29) 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장애유형에서는 청각장애(54.01 ± 17.30)가 지체장애(44.84 ± 13.18)보다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학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미래부정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연령($F=4.62, p<.05$), 장애유형($F=2.84, p<.05$), 장애등급($t=5.98, p<.001$)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 1~3등급(8.05 ± 3.18)이 4~6등급(5.60 ± 1.70) 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18~20세(8.45 ± 3.24)가 24세 이상(6.73 ± 2.51)보다 높게 나타났고, 21~23세(8.02 ± 3.32)가 24세 이상(6.73 ± 2.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서는 청각장애(8.84 ± 3.01)가 지체장애(7 ± 2.96)보다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신부정에서는 장애유형($F=3.23, p<.05$)과 장애등급($t=4.54, p<.001$)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 1~3등급(7.83 ± 2.87)이 4~6등급(5.92 ± 1.86)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장애유형에서 청각장애(8.69 ± 2.88)가 지체장애(7.02 ± 2.52)보다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걱정과 초조에서는 장애등급에서만 우울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t=5.68, p<.001$), 1~3등급(8.46 ± 3.24)이 4~6등급(6.17 ± 1.63)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기분에서는 학년($F=2.81, p<.05$)과 장애등급($t=4.58, p<.001$)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애등급에서는 1~3등급(8.39 ± 3.30)이 4~6등급(6.39 ± 1.85)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체화 증상에서는 학년($F=2.91, p<.05$)과 장애등급($t=3.22, p<.01$)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등급에서는 1~3등급(8.24 ± 2.85)이 4~6등급(6.67 ± 2.27)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욕상실에서는 학년($F=2.69, p<.05$), 장애유형($F=2.89, p<.05$), 장애등급($t=3.16, p<.01$)에서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과 장애유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애등급에서 1~3등급(8.78 ± 3.25)이 4~6등급(7.10 ± 2.45)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

<표6>에 의하면 장애대학생의 연령($F=4.54, p<.05$), 학년($F=4.86, p<.01$), 장애등급($t=-2.19, p<.05$)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 4~6등급(148.25 ± 21.86)이 1~3등급(138.06 ± 22.82)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24세 이상(146.01 ± 21.95)이 18~20세(132.43 ± 22.85)보다 대

학생생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4학년(156±21.33)이 1학년(134.18±24.48)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장애대학생의 학년($F=3.52, p<.05$), 장애등급($t=-2.21, p<.05$)에서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등급에서 4~6등급(38.85±7.69)이 1~3등급(35.26±7.94)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연령($F=3.14, p<.05$), 학년($F=5.47, p<.01$), 장애등급($t=-2.01, p<.05$)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장애등급에서 4~6등급(41.96±7.82)이 1~3등급(38.81±7.61)보다 학교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에서는 24세 이상(40.63±7.90)이 18~20세(36.67±7.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4학년(46±8.19)이 1학년(37.04±7.67)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적응에서는 장애대학생의 학년($F=2.99, p<.05$)과 장애유형($F=3.65, p<.01$)에서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는 4학년(30±5)이 1학년(25.01±5.70)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서는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26.51±5.55)가 청각장애(23.47±5.43)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장애(27.55±4.28)가 청각장애(23.47±5.43)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적응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연령($F=4.16, p<.05$)과 학년($F=2.75, p<.01$)에서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서는 24세 이상(40.68±6.43)이 18~20세(36.89±7.01)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4.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7>와 같다. 장애대학생의 불안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692, p<.01$), 이는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459, p<.01$), 이는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r=-.698, p>.01$),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장애대학생의 우울 정도 비교

배경변인(N)		미래부정		자신부정		걱정과 초조		우울기분		신체화증상		의욕상실		우울총점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성별	남(106)	7.77(3.51)	.42	7.50(3.07)	-17	7.83(3.19)	-1.44	7.80(3.07)	-1.43	7.74(2.86)	-1.46	8.21(3.16)	-1.56	46.86(16.70)	-1.09
	여(82)	7.58(2.56)		7.57(2.46)		8.50(3.10)		8.47(3.34)		8.35(2.75)		8.95(3.21)			
연령	18~20(37) ^a	8.45(3.24)	4.62* (a>c, b>c)	8.08(2.91)	2.57	8.62(3.81)	.88	8.59(3.37)	.56	8.75(3.08)	1.62	8.72(3.33)	1.28	51.24(17.91)	1.75
	21~23(90) ^b	8.02(3.32)		7.76(3.02)		8.16(3.23)		7.94(3.25)		8.82(3.42)		48.57(16.64)			
	24이상(61) ^c	6.73(2.51)		6.90(2.33)		7.75(2.57)		8.01(3.04)		8.00(2.72)		45.19(13.60)			
학년	1학년(82)	8.15(3.35)	1.63	8.03(3.06)	1.98	8.74(3.40)	2.09	8.81(3.31)	2.81*	8.65(2.86)	2.91*	9.24(3.37)	2.69*	51.65(17.18)	3.01*
	2학년(78)	7.46(2.80)		7.32(2.68)		7.76(2.95)		7.62(3.12)		7.62(2.82)		45.92(14.76)			
	3학년(16)	7.50(3.22)		7.12(2.15)		7.43(2.89)		7.68(2.70)		7.43(2.80)		45.12(15.06)			
	4학년(12)	6.25(3.16)		6.25(2.30)		7.08(2.53)		6.75(2.76)		6.83(1.64)		40.41(12.90)			
학과	인문사회(97)	7.73(3.22)	.62	7.62(2.77)	.89	8.35(3.32)	2.55	8.34(3.50)	2.53	8.10(2.88)	1.94	8.53(3.36)	1.83	48.69(17.03)	2.08
	이공계(50)	7.32(3.16)		7.12(3.00)		7.28(2.41)		7.24(2.43)		7.40(2.44)		7.96(2.52)		44.32(13.18)	
	예체능(41)	8.04(2.87)		7.87(2.72)		8.60(3.43)		8.56(3.15)		8.53(3.05)		9.24(3.46)		50.87(16.40)	
장애유형	시각(12) ^a	7.66(3.33)	2.84* (b>c)	7.16(2.91)	3.23* (b>c)	8.58(3.47)	2.06	7.58(3.08)	1.16	7.25(2.13)	2.30	7.75(2.59)	2.89*	46.00(15.91)	2.81* (b>c)
	청각(53) ^b	8.84(3.01)		8.69(2.88)		9.01(3.49)		8.77(3.42)		8.92(3.13)		9.75(3.46)		54.01(17.30)	
	지체(77) ^c	7.14(2.86)		7.02(2.52)		7.50(2.68)		7.62(2.55)		7.51(2.30)		8.02(2.73)		44.84(13.18)	
	뇌병변(27) ^d	7.00(2.96)		7.18(2.71)		8.29(2.93)		8.40(3.59)		8.14(3.35)		8.00(3.24)		47.03(15.54)	
	기타(19) ^e	7.68(3.80)		7.21(3.24)		7.59(3.73)		8.00(4.24)		7.73(3.01)		8.47(3.77)		46.68(20.48)	
장애등급	1~3(160)	8.05(3.18)	5.98***	7.83(2.87)	4.54***	8.46(3.24)	5.68***	8.39(3.30)	4.58***	8.24(2.85)	3.22**	8.78(3.25)	3.16**	49.77(16.44)	5.83***
	4~6(28)	5.60(1.70)		5.92(1.86)		6.17(1.63)		6.39(1.85)		6.67(2.27)		7.10(2.45)		37.89(8.29)	
발생시기	선천성(81)	7.83(2.85)	.56	7.58(2.66)	.13	8.19(3.09)	.28	8.13(3.18)	.14	8.13(2.71)	.52	8.75(3.11)	.80	48.64(14.62)	.47
	후천성(107)	7.57(3.33)		7.52(2.94)		8.06(3.22)		8.06(3.23)		7.91(2.91)		8.37(3.26)		47.52(17.11)	
입학방법	특별(152)	7.63(2.98)	-.53	7.58(2.78)	.37	8.08(3.07)	-.32	8.04(3.15)	-.43	7.98(2.87)	-.23	8.48(3.14)	-.50	47.81(15.75)	-.33
	일반(36)	7.94(3.70)		7.38(2.99)		8.27(3.57)		8.30(3.46)		8.11(2.64)		8.77(3.46)		48.80(17.48)	
거주지	자택(81)	7.72(3.25)	.31	7.13(2.67)	1.52	7.07(3.07)	.39	7.86(3.14)	.57	7.80(2.72)	.52	8.28(3.07)	.46	46.72(15.55)	.44
	기숙사(95)	7.74(3.12)		7.85(3.01)		8.15(3.29)		8.20(3.24)		8.11(2.88)		8.70(3.32)		48.77(16.65)	
	기타(12)	7.00(2.33)		7.91(7.97)		8.83(2.82)		8.83(3.45)		8.58(3.11)		8.91(3.14)		50.08(15.19)	

* p<.05, ** p<.01, *** p<.001

<표 6> 장애대학생의 학교적응 정도 비교

하위영역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		총점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성별	남(106)	36.61 (8.64)	1.59	39.32 (8.29)	.08	26.16 (5.43)	1.17	38.67 (7.53)	-.15	140.78 (25.17)	.81
	여(82)	34.74 (6.97)		39.21 (6.93)		25.21 (5.61)		38.34 (6.06)		138.02 (19.68)	
연령	18~20(37) ^a	33.97 (8.38)	3.05	36.67 (7.13)	3.14* (c>a)	24.89 (5.81)	2.21	36.89 (7.01)	4.16* (c>a)	132.43 (22.85)	4.54* (c>a)
	21~23(90) ^b	35.23 (7.88)		39.44 (7.61)		25.30 (5.55)		38.18 (6.94)		138.15 (22.69)	
	24이상(61) ^c	37.73 (7.63)		40.63 (7.90)		26.95 (5.15)		40.68 (6.43)		146.01 (21.95)	
학년	1학년(82) ^a	34.21 (8.64)	3.52*	37.04 (7.67)	5.47** (d>a)	25.01 (5.70)	2.99* (d>a)	37.54 (7.56)	2.75*	134.18 (24.48)	4.86** (d>a)
	2학년(78) ^b	36.05 (7.15)		39.84 (7.18)		25.93 (5.17)		38.92 (6.23)		140.75 (19.92)	
	3학년(16) ^c	40.25 (6.40)		41.12 (6.87)		25.50 (5.51)		42.31 (6.71)		149.18 (21.30)	
	4학년(12) ^d	39.00 (7.86)		46.00 (8.19)		30.00 (5.00)		41.00 (4.74)		156.00 (21.33)	
학과	인문사회(97)	36.07 (8.46)	1.32	39.06 (7.92)	.08	25.87 (5.53)	.48	38.83 (6.85)	.03	139.84 (23.26)	.24
	이공계(50)	36.68 (7.95)		39.46 (7.84)		26.12 (5.52)		38.52 (7.58)		140.78 (23.90)	
	예체능(41)	34.07 (6.69)		39.58 (7.16)		25.02 (5.54)		38.80 (5.33)		137.48 (21.17)	
장애유형	시각(12) ^a	35.75 (7.78)	.82	38.08 (7.79)	.90	26.75 (5.46)	3.65** (c>b, d>b)	39.00 (6.64)	1.52	139.58 (22.56)	1.78
	청각(53) ^b	34.33 (5.99)		38.35 (5.98)		23.47 (5.43)		36.88 (5.70)		133.05 (18.41)	
	지체(77) ^c	36.90 (8.43)		40.55 (7.81)		26.51 (5.55)		39.88 (7.13)		143.87 (23.60)	
	뇌병변(27) ^d	35.44 (7.31)		38.66 (9.91)		27.55 (4.28)		38.70 (6.52)		140.37 (22.63)	
	기타(19) ^e	35.89 (11.54)		38.31 (8.04)		25.84 (5.72)		39.21 (9.12)		139.26 (29.42)	
장애등급	1~3(160)	35.26 (7.94)	-2.21*	38.81 (7.61)	-2.01*	25.63 (5.42)	-.73	38.35 (6.92)	-1.85	138.06 (22.82)	-2.19*
	4~6(28)	38.85 (7.69)		41.96 (7.82)		26.46 (6.10)		40.96 (6.51)		148.25 (21.86)	
발생시기	선천성(81)	34.66 (7.00)	-1.74	38.80 (7.59)	-.74	25.67 (5.37)	-.16	34.44 (6.71)	-.51	137.59 (21.01)	-1.03
	후천성(107)	36.65 (8.59)		39.64 (7.80)		25.82 (5.64)		38.97 (7.08)		141.08 (24.24)	
입학방법	특별(152)	35.44 (7.74)	-1.23	39.23 (7.37)	-.18	25.67 (5.67)	-.42	38.74 (6.77)	-.005	139.09 (22.29)	-.59
	일반(36)	37.27 (8.91)		39.50 (9.11)		26.11 (4.86)		38.75 (7.57)		141.63 (25.61)	
거주지	자택(81)	37.03 (8.60)	1.75	38.33 (8.43)	1.09	26.33 (5.49)	1.74	39.39 (7.43)	.88	141.09 (25.62)	.38
	기숙사(95)	34.78 (7.56)		39.94 (7.19)		25.57 (5.40)		38.42 (6.64)		138.73 (21.28)	
	기타(12)	35.41 (6.17)		40.41 (6.15)		23.25 (6.18)		36.91 (5.03)		136.00 (15.60)	

* p<.05, ** p<.01

<표 7>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의 관계 비교

	불안	우울
우울	.692**	
학교적응	-.459**	-.698**

** p<.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배경변인에 따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장애대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 대학의 188명의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성별, 학년,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연구대상 연령은 다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lark, et al.(1994)의 연구에서 불안 정도가 여자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후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요소, 특히 대학생활에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장애등급에서는 1~3등급이 4~6등급보다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들은 필기나 강의실 이동, 경쟁에서의 차별, 동아리 활동, 교우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며, 졸업 후 제한된 직종과 실업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옥경, 2004). 대학생활에서의 이 같은 어려움과 졸업 후 진로에서의 어려움은 중증 장애인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 대학생의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물론 장애 유형 및 심각성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대학생활 지원과 취업과 같은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학년,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한 결과 학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애유형에서는

청각장애가 지체장애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라 우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신체장애인이 정신장애인에 비해 일반인에게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는데(최국환, 2003; 조재훈, 2003), 이러한 일반인 인식과 같은 외적요인은 정신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장애인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와 지체장애 모두 신체장애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생이 지체장애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쉽게 그 원인을 속단하여 말 할 수 없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우울 정도와 요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에서는 1~3등급이 4~6등급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권현용과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우울 정도가 경증장애인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불안과 마찬가지로 우울 문제와 관련된 상담과 더불어 장애 유형 및 심각성에 근거하여 개별 장애대학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위영역인 미래부정 영역에서 장애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우울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18~20세가 24세 이상보다, 21~23세가 24세 이상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정도가 심해진다는 Natasja et al.(2007)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장애대학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정도가 적어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연령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낮아지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장애대학생이 대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적응을 위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 초기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직후의 전문적 상담이나 멘토링 제도의 활용과 같은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연령, 학년,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 학년, 장애등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4세 이상이 18~2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는 4학년이 1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서 4학년이 1학년 보다 더 높은 적응을 보였는데, 이는 신입생이 재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혜성 외, 1998; 황상하, 1995). 신입생들은 대학생이 되면서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김성경, 2003). 또한, 장애등급에서는 4~6등급이 1~3등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많은 물리적·학업적 차원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상관 정도가 높다(이경립, 박재국, 2007; Tincani, 2004). 특히, 본 연

구결과처럼 장애대학생이 신입생이거나 연령이 낮거나 장애정도가 심각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정보적인 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위영역인 일반적 적응에서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우울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청각장애대학생이 지체장애대학생과 뇌병변장애대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적응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대학생이 지체장애대학생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청각장애대학생의 학교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대학장애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동 및 시설 접근에 대한 지원보다는 강의 중 학습 지원을 주로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받는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수가 증가하면서 장애유형뿐만 아니라 심각성 정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기존의 장애대학생 지원이 대학 내 시설 및 이동 지원을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좀 더 세세한 부분에서의 지원까지 모색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대학생의 불안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남재, 2005; 한상희, 박 경, 2005). 또한, 불안과 대학생활 적응,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권형용, 김현미, 2004; 박금란, 1998; 박은조, 2000; 조난경, 1997, 최재빈 외, 1999, 한덕웅 외, 1992). 즉, 장애대학생이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은 휴학이나 자퇴와 같은 대학 부적응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진호, 2004). 올해 교육부는 도우미 지원을 요청하는 장애대학생에게 1:1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침을 내놓았다(세계일보 2007년 4월 12일자). 입시를 치루고 대학에 들어온 장애대학생은 실제적으로 학업적으로는 일정 수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 심리적인 도움을 더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불안과 우울같은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장애대학생 개인의 성별, 나이, 학년,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서 불안, 우울, 학교적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대학생의 불안은 여학생이거나 장애가 심각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장애대학생의 우울은 청각장애이거나 장애가 심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신입생이거나 연령이 낮거나

장애가 심각할수록 낮은 적응을 보였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인별 특성에 따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대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특성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불안, 우울이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장애대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2), 43-56.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김남재 (2005). 불안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 고찰.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8(2), 39-62.
-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2), 215-237.
- 김진호 (2004).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분석. **인문과학논총**, 13, 119-136.
- 박금란 (1998). 불안 및 귀인 성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은조 (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세계일보 (2007).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움안되는 1:1도우미 지원. 4월 12일자.
- 이경림, 박재국 (2007).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및 자원 방안 연구.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50(1), 1-20.
- 이민수, 이민규 (2005). **한국 우울증 검사**. 서울: 학지사.
- 이옥경 (2004). 장애대학생의 진로지도와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3, 169-195.
- 이혜성, 손영숙, 김미경 (1998). 대학생의 문제진단 및 해결행동 체크리스트 제작 연구. **학생생활연구**, 25, 42-103.
- 장순욱 (2001). 장애인 특례입학 대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지체장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5(1), 85-108.
- 정재권, 강영애 (2004). 장애대학생의 삶의 질 실태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2), 305-325.
- 정현욱 (1996).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사회 심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 25, 83-101.
- 조난경 (1997). 초등학교 학습자의 상황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조재훈 (2003). 장애인의 통합체육에 대한 체육전공 대학생의 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1), 191-202.
- 최국환 (2003). 한국재활기관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직업재활연구**, 10(2), 81-91.
- 최국환 (2006). 대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태도 연구. **직업재활연구**, 16(1), 265-280.
- 최재빈, 꺾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간의 상관관계-인천 시내 1개 남녀공학교등학교를 중심으로 -. **가정의학회지**, 20(9), 1144-1151.
- 한국재활복지대학 (2005). **고등교육 기관의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세미나

자료.

-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 (1992). 대학생들의 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불안, 우울 및 신체형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47-462.
- 한상희, 박 경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5(1), 43-61.
- 황상하 (1995).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Clark, D. B., Smith, M. G., Neighbors, B. D., Skeriec, L. M., & Randall J. (1994).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ce: Characteristics, prevalence, and comorbidit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113-137.
- Coleman, M. C. & Webber, J. (2002). *Emotional and Behavioral*. 박영애, 이효신 역 (2004), 서울: 시그마프레스.
- Kazdin, A. E. (1988). Childhood depression. In E. J. Mash & L. G. Terdal (Eds.), *Behavioral assessment in childhood disorders (2nd Ed.)* (pp. 157-19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Finkelstein, R., & Strauss, C. C. (1987). Comparison of DSM-III separation anxiety and overanxious disord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comorbidit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527-531.
- Natasja D. J, Robert F. F., & Frank C. V. (2007). Predictors of future depress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7, 137-144.
- Rutter, M (1991). Age changes in depressive disorders: Some development considerations.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273-3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ncani, M. (2004). Improving outcomes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Teaching*, 52, 128-132.

Anxiety,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im, Ja-Kyoung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ang, Hye-Jin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Ju-Young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nxiety,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anxiety,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regarding the anxiety level,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genders, grades, and disability levels.

Second, regarding the depression level,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grades, disability types, and disability levels.

Third, regarding the school adaptability level,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ges, grades, and disability levels.

Forth,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ere a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nxiety and school adaptability,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bility.

Key words: anxiety, depression, school adaptability,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논문 접수: 2007. 11. 1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21